

## 상수도 소독약품에 관한 세미나 개최

— 91. 7. 26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



최근 상수도 정수과정에서 염소 이외에 소독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산화염소 및 오존에 관한 세미나를 1991. 7. 26 (금) 대전직할시 유성관광호텔에서 약240명의 회원과 상수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는 본회 최중완회장의 인사말이 있는 후 양재근 본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물 처리에 사용하는 오존의 효과”에 대해 발표한 박영규(영남대 환경공학과)교수는 유럽에서는 1970년대 상수도 정수과정에 본격적으로 오존과 입상활성탄 공정을 도입하였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난분해성 미량물질 등의 유입으로 상수 원수의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고도 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존 공정과 입상활성탄 처리 공정을 함께 설치하여 양질의 수도물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산화염소와 상수처리”에 대해 발표한 김선태(한국과학기술원 화학분석실 책임연구원)는 이산화염소는 강한 살균력, 응집효과의 향상 및 상수 소독과정에서 2차적인 인체 유해물질을 생성하지 않는 우수한 상수 소독제이나 첨단 장비나 약품으로도 완전 정제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 개 회 사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소독약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협회회원과 상수도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수도에 주로 사용되는 소독제는 염소입니다. 염소는 앞으로 수질이 좋을 경우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만은 염소의 대체 소독약품인 오존과 이산화염소를 주제로 해서 오늘 세미나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존은 염소 보다도 아주 강력한 산화제로서 어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생산 하지도 않고 가장 우수한 살균성을 가지고 있으나 잔류성이 없어서 송배수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와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산화염소는 염소에 비해서 강력한 소독력을 가지고 있고 유기물을 합성해서 유해로운 물질을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염소에 대체할 수 있는 소독약품은 역시 경제성이 있고 또 효율적이고 또 마시는 데 좀더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맛있는 물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여러가지 새로운 사회 여건에 따라서 좋은 대체물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협회에서 봄과 가을에 개최하는 세미나는 발표되는 양이 많아서 그냥 발표하시는 분이 발표를 하시고 한 두분의 질의 응답으로 그쳐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진행방법은 주제를 발표해 주시고 토론자 여러분이 같이 문제를 토론하시고 그리고 좌중에서도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의문점 이런것들을 질문해서 충분히 토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목적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어느 것이 좋다 하는 것 보다 많은 분들이 장·단점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의 판단은 수도사업하시는 분들이 결심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제품에 대해서 선전을 한다든가, 나쁘다든가 이런 것을 결정적으로 얘기하자는게 아니라 어떤 제품인지 장·단점이 있으므로 글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마지막 판단은 소비자 혹은 실제사용자인 수도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결심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자료와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후원을 크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협진수기와 제아린아세아 두 회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큰 재정적인 큰 뒷받침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우리의 수도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큰 이 과제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연구를 하신 박영규교수님과 김선택 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이 토론에 참가해 주실 이철희 교수님, 방백원 교수님, 옥치상 교수님, 이순화 교수님, 그리고 유명진 교수님, 정희철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분께 오늘 이와 같은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지식을 주실 분들께 대해서도 사의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협회가 큰 재정과 많은 인원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그



마한 세미나 모임을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협회 직원 여러분이 세미나를 조직을 해 주시고 운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리가 우리 상수도 발전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여기서 이루어 지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제 치사에 가늠하고자 합니다.

1991. 7. 26

사단법인 한국수도협회  
회장 **최종완**